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대학의 취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황인섭 (경성대학교)** · 윤성용(경성대학교)*** · 양재훈 (경성대학교)****

국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대학의 취업 성과를 포함한 대학 경쟁력 제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그 효과와 정책적 방향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의 등급이 좋은 대학이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에서 더 우수한 경쟁력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장학금지급율과 졸업생취업률에서 등급별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대학이 통제하기 용이한 장학금지급율은 낮은 등급의 평가결과로 위기의식이 강한 대학이 더 높은 개선도를 나타내었다. 졸업생취업률에서는 평가등급이 높을수록 높은 개선도를 나타내고 있었으나 C등급에서는 낮은 등급의 평가결과에 따른 위기의식으로 인해 상위등급인 B등급보다 높은 개선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대학의 주요 성과인 졸업생취업률에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사용된 교육여건, 학생지원, 교육성과에 관한 지표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정량지표는 졸업생취업률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각 대학들이 확대하고 있는 취업관련 교과 및 비교과와 같은 정성적 노력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정량지표 분석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 시사점과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대학구조개혁평가, 정량지표 변화율, 졸업생취업률.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경성대학교 「신임교원 특별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제1저자, 경성대학교 미래융합학부 조교수, E-mail: ishwang@kyungsung.ac.kr

*** 공동저자, 경성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E-mail: yoon6@ks.ac.kr

**** 교신저자, 경성대학교 경제금융물류학부 부교수, 부산광역시 남구 수영로 309 상학관 318호 ; E-mail: yjh4078@ks.ac.kr; Tel: 051-663-4553; Fax: 051-627-6830.

1. 서론

2014년 교육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의 지역간 균형 발전 및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을 우려하여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방안으로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5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새로운 대학평가체제를 도입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구조개혁 조치를 실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가장 큰 영향은 대학의 정원감축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즉, 2014학년도까지 시행된 대학특성화사업으로 인해 구체적인 정원감축 비율을 각 대학별로 차이가 발생하였지만 교육부의 감축비율**을 권고 받아 대학의 구조개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18년 정원현황을 2013년 정원과 비교하여 볼 때 총 26,286명의 정원이 감축되었는데, 수도권은 4,005명이 감축된 반면 지방에서는 22,281명의 정원이 감축되어 지방 소재 대학에 집중적으로 정원 감축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중요한 목적을 퇴색하게 만든 결과이다.

뿐만 아니라 2015 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대해 D, E등급을 받은 대학들 중 일부는 교육부를 향의 방문하여 평가결과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선언하는 정책 불복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총장과 보직자들이 사퇴하는 등 대학에 큰 혼란을 초래하였다(주경일, 2018).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학령인구의 감소는 지속되고 있으며, 대학등록금 동결압박에 따른 대학의 정부재정지원 요구 증대 등이 대학의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수도권 대학에 대한 학생 수요자의 집중은 완화될 줄 모르고, 오히려 지방 학생의 수가 더욱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시장 논리에 맡겨진 대학의 구조개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과 대

* 2023학년도는 2014년 기준 입학정원보다 16만명의 입학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함(교육부, 2014a).

** 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에 따른 정원감축 권고비율은 다음과 같음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별도 조치
감축비율	자율감축	4%	7%	10%	15%	7%

자료: 교육부(2015)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구분	수도권		지방		합계	
	입학정원	비율	입학정원	비율	입학정원	비율
2013년 (a)	124,871	36.6	216,493	63.4	341,364	100.0
2018년 (b)	120,866	38.4	194,212	61.6	315,078	100.0
증감인원 (c=b-a)	-4,005		-22,281		-26,286	
증감율 (c/a)	-3.2		-10.3		-7.7	

자료: KHEI 대학교육연구소(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전망과 시사점

학 경쟁력 제고를 달성할 수 없기에 대학평가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학평가는 대학의 최종 성과 중 하나인 취업 부분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발전에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여 기여하여 온 대학의 역할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의 교육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대학의 취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명칭의 변경과 함께 지속되고 있는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2.1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개요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평가를 위해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인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를 중심으로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여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구분하여 평가하였다. 많은 대학의 행정력이 투입되는 평가로 인한 대학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단계평가를 실시하였는데 1단계 평가를 통해 A, B, C등급의 그룹1과 D, E등급의 그룹2로 구분하였다. 그룹1의 대학들은 A, B, C등급에 따라 대학정원의 감축비율을 차등 적용 받으며, 그룹2의 대학들은 더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더불어 정부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되었다. 단계별 평가내용으로 종교 및 예술 중심의 특수목적 대학을 제외한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1단계에서는 교육여건, 학사관리 및 학생지원, 교육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였고, 1단계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대학을 대상으로 2단계에서 중장기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항목을 평가하였다(교육부, 2014b). 대학구조개혁 평가 1주기는 2015년 4월에 각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고, 5월 대면평가를 실시하였으며, 8월말 최종결과를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되었다. 평가대상은 일반대학 총 192개 대학 중 종교 및 예술 중심 대학 29개를 제외한 163개 대학으로 평가가 진행되었으며 평가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 최종등급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별도 조치
학교 수	34개 대학	56개 대학	36개 대학	26개 대학	6개 대학	5개 대학

※ 별도 조치 대학은 평가 대상이었으나, 종교계 및 예체능계 비중이 높아 특수성을 고려하여 평균수준 정원감축 비율을 권고 받은 대학임

※ 자료: 교육부(2015)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2.2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평가지표

대학구조개혁평가 지표는 1단계 평가와 2단계 평가로 구분하여 <표 2>와 같이 1단계 평가는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 총 4개 항목 12개 지표 60점으로 구성되었다.

<표 2>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1단계 평가 지표 및 평가요소

항목	평가 지표	평가 요소
교육 여건 (18)	전임교원확보율(8)	<정량> 전임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5)	<정량> 교사확보율
	교육비환원율(5)	<정량> 교육비환원율
학사 관리 (12)	수업 관리(8)	<정량>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 <정량> 강의규모의 적절성 <정량/정성> 시간강사의 보수수준 <정성> 수업관리의 엄정성
	학생 평가(4)	<정성> 엄정한 성적 부여를 위한 제도 운영
학생 지원 (15)	학생 학습역량 지원(5)	<정성> 학생 학습역량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여부 <정성> 관련 규정, 자원 확보 등 지원 <정성> 학생 학습역량 프로그램의 정량적, 정성적 실적 <정성> 환류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3)	<정성> 진로 및 심리 상담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여부 <정성> 관련 규정, 자원 확보 등 지원 <정성> 진로 및 심리 상담 프로그램의 정량적, 정성적 실적 <정성> 환류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장학금 지원(5)	<정량> 장학금지급률
	취·창업 지원(2)	<정성>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구축·운영 여부 <정성> 관련 규정, 자원 확보 등 지원 <정성>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의 정량적, 정성적 실적 <정성> 환류시스템을 통한 프로그램 개선 실적
교육 성과 (15)	학생충원율(8)	<정량> 신입생충원율 <정량> 재학생충원율
	졸업생취업률(5)	<정량> 졸업생취업률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2)	<정성>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시스템 운영 <정성> 만족도 조사의 체계성 <정성>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의 합리성, 결과에 따른 교육 서비스 개 선 노력의 구체성

※ 자료: 교육부(2014b)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

정량지표는 총 9개 요소로 절대평가로 만점에서 감점하는 방식으로 계산되고, 정성지표는 17개 요소로 평가척도를 5등급으로 구분하고 정성적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여 점수를 산출하였다. 정량지표는 지표의 특성에 따라 만점 값을 달리하였는데, 교사확보율은 100%를, 학생 충원율은 수도권/지방의 각각 평균값을, 졸업생취업률은 권역별 평균값을, 기타 지표는 전국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였다.

한편, 2단계 평가는 <표 3>과 같이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과정, 특성화 총 3개 항목 6개 지표 40점으로 구성되었고 모두 정성지표로 구성되었으며, 평가척도를 5등급으로 구분하고 정성적 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여 점수가 산출되었다.

<표 3>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2단계 평가 지표 및 평가요소

항목	평가 지표
중장기발전계획 (10)	<정성> 중장기 발전계획의 적절성(5)
	<정성> 중장기 발전계획과 학부(과) 및 정원 조정의 연계성(5)
교육과정 (20)	<정성>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 교육과정 (5)
	<정성> 전공능력 배양을 위한 전공 교육과정 (5)
	<정성> 교육과정 및 강의 개선(10)
특성화 (10)	<정성> 특성화 계획의 수립, 추진, 성과(10)

※ 자료: 교육부(2014b)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

2.3 대학구조개혁평가 관련 선행연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기존 연구는 첫째,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방향과 둘째,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대학 및 구성원의 대응에 대한 주제로 연구 되었다.

2.3.1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연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관한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강창동(2015)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을 분석하여, 평가 목적의 모순성, 평가 내용의 오류성, 평가 결과의 정치성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이기종(2015) 역시 대학구조개혁평가 정책을 평가하여 구조개혁의 주제와 방향, 대학의 폐쇄와 정원 감축, 대학구조개혁평가 준거에 관하여 분석하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정부의 규제와 통제보다는 대학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쌍방향적인 해결방안을 찾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상진(2015)은 대학구조개혁의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지적하고 한국대학의 근본 문제 진단에 근거한 ‘처방적 대학구조

개혁'추진 등 다양한 방향성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신현석(2016)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바탕으로 쟁점 해소를 위한 정책의 향후 추진 과제를 연구하여 정책 방안의 합목적성과 수단적 합리성 강화, 합리적 실행력 확보를 위한 추진방식의 보완, 컨설팅을 통한 결과 활용의 개선 등을 말하였다.

이러한 구조개혁평가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정부 주도 대학평가 전반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이인수·서경화(2017)는 정부주도 대학평가가 목표 '수월성', 평가항목의 유사성에 따른 재정지원의 수혜 중복, 정성평가 반영으로 인한 공정성 문제 등의 문제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 평가의 방향성 정비와 대학의 정책 합리성 강화를 유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학 평가 개편을 주장하였다. 한편, 김종성(2018)은 평가를 위한 평가인 메타평가를 분석하여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여, 평가주체의 설치 근거가 부재하며 독립성·자율성·대표성이 부족하며, 평가의 목적이 지나치게 정원 감축에 집중되어 있으며 평가결과의 활용 근거가 결여되어 있어 대학과 학문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고려한 평가가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이상호·김혁주(2017)는 구조개혁평가대학의 평가지표에 대한 변수 정확도를 분석하고 평가지표와 재무비율과의 관계에 대하여 분석하여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이기 보다 재무적 성과에 대한 평가에 가깝다고 판단하여 평가 방식의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임은희(2019)는 1,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지방대·전문대 중심의 부담증대, 수도권 집중도 심화, 교육여건 개선의 부족 등을 과제를 제시하며,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 개선의 기회로 이해하고 소외된 지방대, 전문대, 사립대 중심의 상생 구조개혁을 추진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

2.3.2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대학 및 구성원 대응에 관한 연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 관한 다른 연구들은 대학과 구성원들의 인식과 대응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최정인·문명재(2017)는 국내 수도권과 지방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라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응하여 어떠한 대응전략을 취하는지를 자원의존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대학의 예산 규모가 작을수록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순응성이 높으며, 정부재정의존도와 대학의 대응전략에는 부의 관계가 있음을 밝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대학 차원의 반응에 대해 연구하였다.

주경일(2018)은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한 각 행위 주체별 인식을 비교분석하여, 정책 추진 시 대학구성원과의 소통 강화, 대학 구성원별 차별화된 추진전략 수립, 대학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평가 매뉴얼 구성, 교육부와 대학의 협업 기반의 구조개혁 추진 및 퇴출 대학에 대한 학생 및 교직원 처우 방안을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관련한 연구주제를 요약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대학구조개혁평가에 관한 주요 연구

주요 주제	연구자	연구내용
구조개혁평가의 쟁점과 과제	강창동(2015)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 분석 연구
	이기종(2015)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배경, 평가개요, 쟁점과 문제점 등에 관한 연구
	반상진(2015)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구조개혁 정책 개선을 위한 방향과 대책 연구
	신현석(2016)	정책의 쟁점에 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쟁점 해소를 위한 정책의 향후 추진과제를 연구
	이인수,서경화(2017)	정부주도 대학 평가의 쟁점과 과제에 대한 연구
	이상호,김혁주(2017)	구조개혁평가대학의 평가기준 분류와 채무비율의 경영성과 관계 연구
	김종성(2018)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가진 문제점들을 메타평가를 통하여 연구
	임은희(2019)	1,2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책 평가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대학 및 구성원 대응	최정인,문명재(2017)	국내 수도권과 지방대학이 대학구조개혁평가라는 교육부의 정책에 대응하여 어떠한 대응전략을 취하는지 연구
	주정일(2018)	우리나라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대해 각 행위 주체별 인식을 비교 분석

이와 같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분석 및 과제 제시와 같은 정책적 주제와 그에 따른 대학 및 구성원의 대응에 관한 주제에 집중되어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대학 차원 및 구성원의 대응에 미친 정성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일부 연구되었으나,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정량적 성과에 대한 분석은 실시되지 못하였다. 정부 주도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쟁점도 다양하게 언급되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량적 분석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어떻게 대학의 정량적 성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대학에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고 있는 졸업생 취업률 지표를 포함하여, 대학구조개혁평가 정량지표인 교육여건, 학생지원, 교육성과의 지표를 분석함으로써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직접적으로 대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I. 가설설정 및 연구방법

3.1 가설설정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를 평가하였으며(교육부, 2014a), 이러한 평가로 대학들은 많은 자원 투자와 노력을 지속하였다(교육부, 2017). 그런데 대학 경쟁력을 판단한 대학의 평가 등급결과가 실질적으로 대학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등급이 좋은 대학 일수록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가설 1-1.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등급이 좋은 대학일수록 더 높은 전임교원 확보율을 달성하였을 것이다.

가설 1-2.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등급이 좋은 대학일수록 더 높은 교육비 환원율을 달성하였을 것이다.

가설 1-3.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등급이 좋은 대학일수록 더 높은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달성하였을 것이다.

가설 1-4.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등급이 좋은 대학일수록 더 높은 강의규모 적절성을 달성하였을 것이다.

가설 1-5.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등급이 좋은 대학일수록 더 높은 장학금 지급율을 달성하였을 것이다.

가설 1-6.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등급이 좋은 대학일수록 더 높은 재학생 충원율을 달성하였을 것이다.

가설 1-7.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등급이 좋은 대학일수록 더 높은 졸업생 취업률을 달성하였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대학의 주요 성과인 졸업생 취업률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사용된 교육여건, 학생지원, 교육성과에 관한 지표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김영부(2018)는 동남권 4년제 대학의 3개년 시계열 자료 분석을 통해 교육여건 관련 변수 중 비전임 강의전담비율과 전임교원확보율과 같은 대학 내 인적구성변수, 교육재정 관련 변수 중 재학생 1인당 장학금 지급, 전임교원의 국내 논문 수가 졸업생취업률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김영부(2018)의 연구는 동남권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자 분석된 내용으로 전국 단위의 분석이 아닌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 관련 지표에 관한 연구가 그러하듯이 지표의 절대적 수치를 기반으로 분석하였기에 사회적으로 평판이 좋은 대학이 좋은 성과를 달성하기에 유리한 지표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의 2016년~2018년까지의 지표별 변화율을 기반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사용된 각 평가지표가 졸업생취업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수립하였다.

가설 2.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사용된 교육여건, 학생지원, 교육성과 지표의 변화가 졸업생취업률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3.2 자료 수집 및 연구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교육부 대학정보공시센터의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정보공시 항목의 자료를 기반으로 하였다. 대학정보공시제도는 교육관리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매해 학교 규칙 등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특성화 정도 등에 관한 정성적 자료뿐 만 아니라 학생현황, 전임교원 현황 등과 같은 정량적 자료를 대학별로 공시하는 제도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활용된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전임교원확보율, 교사확보율, 교육비환원율,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 강의규모적절성, 장학금지급률, 신입생충원율, 재학생충원율 그리고 졸업생취업률에 대해 대학별 자료를 수집하였다. 다만, 교사확보율과 신입생 충원율의 경우 대부분 대학이 100%를 달성하고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 및 산식은 <표 5>와 같다.

<표 5> 사용된 변수의 정의

분류	변수	정의 및 산식
교육 여건	전임교원확보율	$(\text{국·공립대}) = \frac{\text{전임교원수(명)}}{\text{교원배정정원(명)}} \times 100(\%)$ ※ 국공립대 교원 배정정원 및 전임교원은 총장과 조교를 제외한 교육공무원에 한함
		$(\text{사립대/국립대법인}) = \frac{\text{전임교원수(명)}}{\text{교원법정정원*(명)}} \times 100(\%)$ ※ 사립대 및 국립대법인 연도별 교원법정정원은 편제정원 기준 혹은 재학생 기준 법정정원 중 큰 수를 기준으로 함
	교육비환원율	$= \frac{\text{총 교육비(천원)}}{\text{등록금 수입 총액(천원)}} \times 100(\%)$ ※ 등록금 수입 총액 : 학부 및 대학원 포함
학사 관리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	$= \frac{\text{전임교원 강의담당 학점(학점)}}{\text{총 개설 강의학점(학점)}} \times 100(\%)$
	강의규모적절성	강의 규모의 적절성 = 0.4 × (20명 이하 규모 강의 비율) + 0.3 × (21~50명 규모 강의 비율) + 0.2 × (51~100명 규모 강의 비율) + 0.1 × (101~200명 강의 비율) ※ 200명 초과 대규모 강좌는 제외

분류	변수	정의 및 산식
학생 지원	장학금지급율	$= \frac{\text{교내외 장학금(천원)}}{\text{등록금 수입총액(천원)}} \times 100(\%)$ ※ 교내외 장학금 및 등록금 수입 총액: 학부만 포함 ※ 교외 장학금중 국가/지방자치단체 장학금은 제외
학생 성과	재학생충원율	$= \frac{(\text{정원내 재학생수} - \text{야간학과 재학생수})(\text{명})}{(\text{편제정원} - \text{학생모집정지인원} - \text{야간학과 정원})(\text{명})} \times 100(\%)$ ※ 학생모집정지인원: 학생정원이 산출되는 학년도의 계열별 입학정원에서 행정처분으로 학생 모집이 정지된 인원
	졸업생취업률	< 계열별, 성별 고려 졸업생 취업률 산식 > $= \sum [\text{계열별, 성별 졸업생 취업률}(T\text{점수}) \times \text{계열별, 성별 취업대상자 비율}]$ ※ T점수의 최저점은 20점, 최고점은 80점으로 설정 ※ 2013년 취업률 = (0.5 × '12.12.31 건보 및 국세DB 연계 취업률 + 0.5 × '13.6.1. 건보가입취업자의 2차 유지취업률) ※ 2014년 취업률 = (0.5 × '13.12.31 건보 및 국세DB 연계 취업률 + 0.5 × '14.6.1. 건보가입취업자의 2차 유지취업률)

※ 자료: 교육부(2014b)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

한편, 분석 자료는 본 연구 목적에 근거하여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발표인 2015년 8월 이후의 영향 요인을 살펴보기 위해 2016년~2018년까지의 3년간 자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졸업생취업률의 경우 졸업 후 일정 기간 이상의 취업 상황을 고려하여 집계함으로써 취업지도에 관한 실제 성과가 1년 이후에 공시되는 특성으로 인해 2017년~2019년까지의 3개년 자료가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활용하였다. 또한 대학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의 절대적인 수준은 대학이 처한 지리적 및 사회적 환경에 따라 큰 영향을 받기에 본 연구에서는 각 지표의 2016년~2018년의 변화율(연평균성장률)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4년제 일반 사립대학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다만,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받은 대학은 총 163개교이었으나, 폐교 및 기타 사유로 인해 2016년~2018년도의 데이터가 정확히 공시되지 않은 대학을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또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E등급을 받은 6개교 중 2016년~2018년 데이터가 모두 존재하는 대학은 3개교가 있으나 통계 분석을 위한 모수로 지나치게 작아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여 <표 6>과 같이 총 144개교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표 6> 표본선정

최종 표본 선정 절차	표본 수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받은 대학	163개교
2016년~2018년도의 데이터가 정확히 공시되지 않은 대학	(13개교)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E등급 대학	(6개교)
최종 선정 표본 대학 수	144개교

연구방법으로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등급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학생 지도 관련 대학 성과의 핵심인 졸업생 취업률의 차이가 어떠한 요인으로부터 기인한 것인지를 분석하기 위해 <표 7>과 같이 졸업생취업률을 종속변수로 나머지 지표들을 독립 변수로 하는 다중 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표 7> 회귀분석 모형

$$Emp_i = \alpha + \beta_1 Sec_i + \beta_2 Res_i + \beta_3 Class_i + \beta_4 Size_i + \beta_5 Sch_i + \beta_6 Rec_i + \epsilon_i$$

예측부호 : (+) (+) (+) (+) (+) (+)

- Emp : 졸업생 취업률(graduates employment rate)
- Sec : 전임교원확보율(full-time faculty security rate)
- Res : 교육비 환원율(educational restitution rate)
- Class :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percentage of full-time faculty classes)
- Size : 강의규모 적절성(class size adequacy)
- Sch : 장학금지급율(scholarship payment rate)
- Rec : 재학생충원율(student recruitment rate)
- i : 개별 대학의 연평균 성장률

IV. 실증분석 결과

4.1 표본의 기초통계

분석대상이 되는 표본의 평균변화율 기초통계량은 <표 8>과 같다.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 지원과 관련된 5개 지표는 모두 양(+)의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장학금지급율은 타 지표에 비해 높은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학생성과 항목 중 졸업생취업률의 경우 음(-)의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재학생충원율의 경우에는 거의 유지되는 수준의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학령인구의 감소 및 취업 환경의 악화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영향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표 8> 평가지표 기초통계량

분류	변수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화 오류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교육여건	전임교원확보율	1.95%	0.027	0.0023	1.51%	2.40%	-8.5%	11.5%

분류	변수	평균	표준화 편차	표준화 오류	평균에 대한 95% 신뢰구간		최소값	최대값
					하한	상한		
	교육비 환원율	2.76%	0.313	0.0260	-2.37%	7.89%	-100.0%	184.5%
학사관리	전임교원강의담당 비율	1.49%	0.031	0.0026	0.98%	2.01%	-7.5%	11.9%
	강의규모적절성*	13.41%	0.027	0.0022	12.97%	13.85%	0.8%	18.8%
학생지원	장학금지급율	3.59%	0.092	0.0076	2.08%	5.09%	-18.0%	82.4%
학생성과	재학생충원율	0.02%	0.021	0.0017	-0.33%	0.36%	-13.3%	8.5%
	졸업생취업률	-0.21%	0.023	0.0019	-0.58%	0.16%	-9.2%	5.9%

4.2 가설검증 결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등급에 따른 각 분류별 변수의 변화율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9>와 같다.

가설 1-1.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등급이 좋은 대학일수록 더 높은 전임교원 확보율을 달성하였을 것이다.

<표 9> 전임교원확보율 분석결과

등급	평균	표준화 편차	ANOVA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유의확률
A등급	1.845%	.024						
B등급	1.748%	.023	집단-간	.001	3	.000	.607	.611
C등급	2.558%	.033	집단-내	.106	141	.001		
D등급	1.874%	.033	전체	.107	144			

※ *p<0.1, **p<0.05, ***p<0.01

대학구조개혁평가 등급 결과가 좋은 A등급과 B등급 대학보다 C등급과 D등급 대학의 평균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유의수준(α) 0.1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1-1은 기각되었다.

가설 1-2.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등급이 좋은 대학일수록 더 높은 교육비 환원율을 달성하였을 것이다.

* 강의규모적절성 지표는 다소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나 2018년부터 산출식이 조정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개선율의 절대적 수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표 10> 교육비 환원을 분석결과

등급	평균	표준화 편차	ANOVA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A등급	-3.453%	.224						
B등급	3.850%	.358	집단-간	.205	3	.068	.696	.556
C등급	3.616%	.266	집단-내	13.874	141	.098		
D등급	8.073%	.357	전체	14.079	144			

※ *p<0.1, **p<0.05, ***p<0.01

대학구조개혁평가 등급 결과가 좋은 A등급 대학보다 B등급과 C등급 대학의 평균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D등급 대학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유의수준(α) 0.1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1-2은 기각되었다.

가설 1-3.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등급이 좋은 대학일수록 더 높은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을 달성하였을 것이다.

<표 11> 전임교원 강의담당 비율 분석결과

등급	평균	표준화 편차	ANOVA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A등급	0.992%	.027						
B등급	1.394%	.030	집단-간	.002	3	.001	.671	.571
C등급	2.032%	.032	집단-내	.140	141	.001		
D등급	1.815%	.039	전체	.142	144			

※ *p<0.1, **p<0.05, ***p<0.01

대학구조개혁평가 등급 결과가 좋은 A등급과 B등급 대학보다 C등급과 D등급 대학의 평균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유의수준(α) 0.1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1-3은 기각되었다.

가설 1-4.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등급이 좋은 대학일수록 더 높은 강의규모 적절성을 달성하였을 것이다.

<표 12> 강의규모 적절성 분석결과

등급	평균	표준화 편차	ANOVA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A등급	13.871%	.020						
B등급	13.674%	.032	집단-간	.003	3	.001	1.414	.241
C등급	12.725%	.027	집단-내	.101	141	.001		
D등급	12.917%	.021	전체	.105	144			

※ *p<0.1, **p<0.05, ***p<0.01

대학구조개혁평가 등급 결과가 좋은 대학 일수록 높은 강의규모 적절성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유의수준(α) 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1-4은 기각되었다.

가설 1-5.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등급이 좋은 대학일수록 더 높은 장학금 지급율을 달성하였을 것이다.

<표 13> 장학금 지급율 분석결과

등급	평균	표준화 편차	ANOVA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A등급	-0.344%	.069	집단-간	.135	3	.045	5.896	.001***
B등급	3.039%	.061	집단-내	1.077	141	.008		
C등급	4.720%	.057	전체	1.213	144			
D등급	9.378%	.167						

* $p < 0.1$, ** $p < 0.05$, *** $p < 0.01$

대학구조개혁평가 등급 결과가 좋은 대학일수록 장학금 지급율의 변화율이 낮아, 유의수준(α) 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가설 1-5은 기각되었다.

가설 1-6.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등급이 좋은 대학일수록 더 높은 재학생 충원율을 달성하였을 것이다.

<표 14> 재학생 충원율 분석결과

등급	평균	표준화 편차	ANOVA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A등급	-0.287%	.008	집단-간	.002	3	.001	1.381	.251
B등급	-0.033%	.015	집단-내	.061	141	.000		
C등급	0.683%	.026	전체	.062	144			
D등급	-0.253%	.036						

* $p < 0.1$, ** $p < 0.05$, *** $p < 0.01$

대학구조개혁평가 등급 결과가 좋은 A등급 대학보다 B등급과 C등급 대학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유의수준(α) 0.1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1-6은 기각되었다.

가설 1-7.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등급이 좋은 대학일수록 더 높은 졸업생 취업률을 달성하였을 것이다.

<표 15> 졸업생 취업률 분석결과

등급	평균	표준화 편차	ANOVA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유의확률	
A등급	0.544%	.022	집단-간	.005	3	.002	3.678	.014**
B등급	-0.422%	.021	집단-내	.069	141	.000		
C등급	0.203%	.019	전체	.074	144			
D등급	-1.294%	.028						

* $p < 0.1$, ** $p < 0.05$, *** $p < 0.01$

대학구조개혁평가 등급 결과가 A등급 대학의 경우에는 B등급, C등급, D등급 대학보다 졸업생 취업률 지표 변화율이 더 높았으나 C등급이 B등급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유의수준(α)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가설 1-7은 기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등급 간에 유의미한 졸업생취업률의 개선이 나타났기에 대학의 졸업생취업률 제고를 위한 정성적 노력이 더욱 직접적인 영향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즉,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많은 대학들은 NCS교과목의 운영 활성화(장승환·임진혁·이재훈·박설우, 2019), 학과단위 취업교과목의 확대(안기돈·황명구, 2018), 취업준비생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프로그램(장재훈·부기철, 2017), 다양한 진로상담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운영(안기돈, 2016; 모영민·김남식·이인서, 2019; 김신애·조항, 2020) 등 다양한 취업 관련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이 대폭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취업에 다소 불리하다고 인식되는 여대생에 대해 전공 관련 인식, 취업 분야에 대한 지식과 태도, 취업 장벽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분석(정영애·김민순, 2015)과 취업 교양 교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 현황 분석(김은영·이재성, 2017) 등 다양한 연구를 통해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행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으며(신혜숙·남수경·민병철, 2013; 윤정혜·유영림, 2015; 장승환·임진혁·이재훈, 2017), 대학의 이러한 노력이 졸업생취업률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대학의 사회 진출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학평가 시 대학의 졸업생취업률 제고 노력에 대한 정성적 요인의 비중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사용된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과의 변화와 졸업생 취업률의 변화를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표 16> 졸업생 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Emp_i = \alpha + \beta_1 Sec_i + \beta_2 Res_i + \beta_3 Class_i + \beta_4 Size_i + \beta_5 Sch_i + \beta_6 Rec_i + \epsilon_i$ 예측부호 : (+) (+) (+) (+) (+) (+)								
변수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공선성 통계량		결정계수
	B	표준화 오류	베타			공차	VIF	
(상수)	.006	.010		.557	.578			
교육여건	Emp	-.096	.075	-.115	-1.276	.204	.856	1.168
	Sec	-.007	.007	-.097	-1.085	.280	.870	1.150
학사관리	Res	-.054	.065	-.075	-.834	.406	.861	1.161
	Class	-.038	.072	-.045	-.522	.603	.951	1.052
학생지원	Sch	.008	.021	.033	.383	.703	.959	1.043
학생성과	Rec	.021	.095	.019	.223	.824	.915	1.093

※ a. 종속변수: 졸업생 취업률, ※ *p<0.1, **p<0.05, ***p<0.01

※ b. Emp(졸업생 취업률), Sec(전임교원확보율), Res(교육비 환원율), Class(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 Size(강의규모 적절성), Sch(장학금지급율), Rec(재학생지원율)

R2 0.039
Adj R2 -0.003

<표 16>에서 보면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각 지표와 졸업생취업률은 유의수준(α) 0.1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가설 2 또한 기각되었다. 이는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연구 분야를 제외하고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한 평가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중요한 결과인 졸업생취업률이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파에 유의미한 영향요인으로 증명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정량지표가 사회진출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해 볼 수 있겠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및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의 결과가 취업성파를 비롯한 대학의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학생성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기존 문헌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선행하였으며, 이를 기초로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등급이 좋은 대학일수록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파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장학금지급율과 졸업생취업률은 유의수준(α) 0.01과 유의수준(α)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우수할수록 대학의 교육 및 취업성파가 우수하지는 않지만, 평가등급에 따른 의미있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으로 장학금지급률과 졸업생 취업률에 대한 주요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장학금지급율은 D등급, C등급, B등급, A등급 순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와 반비례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장학금지급율이 대학구조개혁평가 지표 중 대학이 통제하기 가장 수월한 지표로 여겨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대비하기 위해 위기의식이 높을수록 많은 재정을 장학금에 투자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겠다.

졸업생취업률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이 높은 A등급 대학이 가장 높은 졸업생취업률 변화율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B등급 대학보다 C등급 대학의 졸업생취업률 변화율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이후 위기의식을 느낀 C등급 대학들이 B그룹의 대학들보다 취업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D등급 대학의 경우에는 위기의식으로 인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에 비해 사회적 평판에 영향을 받는 이른 낙인효과로 인해 대학 졸업생취업률 변화율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겠다.

또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사용된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 교육성파 지표의 변화와 졸업생취업률의 변화 영향을 추가적으로 분석한 결과 모든 지표가 졸업생취업률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여 사회에 진출시키고자 하

는 대학 교육 목적에 있어서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지표가 효과적인 평가 요소가 아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대학평가에 있어 교육 분야가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이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 졸업생취업률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각 영역의 정량지표 비중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본 연구결과의 시사점을 학술적 측면과 실무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술적 측면에서는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각 대학의 정량적 요소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반응하였는지를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졸업생취업률과 장학금지급률에 대학이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정량적으로 확인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활용된 정량적 지표가 대학의 사회진출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 되어, 교육여건, 학사관리, 학생지원과 같은 대학의 환경과 기능에 대한 지원이 사회진출을 이루는 데에 효과적인 방식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실무적 측면에서는 살펴보면 먼저 대학의 환경과 기능에 대한 지원이 사회진출을 이루는 데에 효과적인 방식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졸업생취업률이 대학구조개혁평가 등급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취업 성과에 대한 정성적 노력에 따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지표의 적절성 측면과 대학의 취업성과 향상 두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지표의 측면에서는 취업성과 향상을 위해 정량적 지표의 비중 확대보다는 정성적 지표의 비중 확대가 대학의 취업성과를 측정하기에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량적 수치로 나타나지 않는 정성적인 노력들이 대학의 취업성과를 견인하는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으로 대학평가에서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대학의 취업성과 향상이라는 측면의 시사점은 대학의 취업의 다양한 정성적 노력들이 대학구조개혁평가등급 결과보다 더욱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회수요를 반영한 정규 교육과정을 지속적인 혁신과 더불어 학생들의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다양한 비교과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등 대학의 노력이 학생들의 취업성과에 유의미한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으로, 취업성과 향상을 위한 그 동안 대학의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으며 이를 유지 및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2015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분석되었기에 2018 대학기본역량진단의 결과와의 연계성을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는 평가결과가 대학의 성과로 반영되는 시점과 대학의 자료가 공시되는 시점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추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졸업생취업률 지표가 확보되는 데로 심층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방법으로 공시자료만을 활용하였기에 정량적인 지표에 대해서만 분석할 수 있었다. 구체적인 정성적 요소가 대학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설문지법 등을 통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References)

- 강창동(2015), 정부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에 관한 비판적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21(4), 275-306.
- 교육부(2014a),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확정**, 보도자료(12월 24일자).
- 교육부(2015b),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 발표**, 보도자료(8월 31일자).
- 교육부(2014b),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보도자료(1월 29일자).
- 교육부(2015a),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안)**, 교육부.
- 교육부(2017),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 추진 계획**, 교육부.
- 김신애·조향(2020), “대학생 진로집단상담 프로그램의 연구동향 및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취업진로연구**, 10(2), 91-110.
- 김영부(2018), “한국의 동남권 대학의 학내 교육자원이 대학의 취업성과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12), 471-479.
- 김은영·이재성(2017), “여자대학 인문 사회 예술계열 대학생의 취업 의식 및 교양교육 연구 C대학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11(6), 565-596.
- 김종성(2018),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과학연구**, 29(2), 227-248.
- 대학교육연구소(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전망과 시사점**, 보도자료(6월 5일자).
- 모영민·김남식·이인서(2019), “대학입학전형과 대졸자의 취업 프로그램 참여가 취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문화연구**, 25(5), 171-197.
- 반상진(2015),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대책 논의”, **공학교육연구**, 18(2), 14-26.
- 신현석(2016),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쟁점과 과제, **교육정책포럼 자료집**, 3-19.
- 신혜숙·남수경·민병철(2013),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취업성과 분석”, **교육재정경제연구**, 22(1), 211-235.
- 안기돈(2016), “생태계적 작동원리에 기초한 효과적인 대학 취업지원 방안 연구”, **취업진로연구**, 6(3), 21-43.
- 안기돈·황명구(2018), “대학생의 취업준비 동기유발을 위한 학과단위 전공 취업교과목 효과분석-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사례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8(2), 135-157.
- 윤정혜·유영립(2015),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2(8), 479-504.
- 이기중(2015), “대학 구조 개혁 평가의 배경, 쟁점 및 대안”, **교육평가연구**, 28(3), 933-954.
- 이상호·김혁주(2017), “구조개혁평가대학의 평가기준 분류와 재무비율의 경영성과 관계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17(1), 59-70.
- 이인수·서경화(2017), “정부주도 대학평가의 쟁점과 과제: 박근혜정부를 중심으로”, **교육문제연구**, 30(1), 125-155.
- 임은희(2019), “1,2주기 대학구조개혁 정책 평가 및 개선방향”, **대학: 담론과 쟁점**, (2), 45-56.
- 정영애·김민순(2015), “경남지역 여대생의 취업의식과 취업준비 프로그램 개발”, **지역산업연구**, 38(3),

57-87.

장승환·임진혁·이재춘(2017), “취업프로그램 활용이 대학생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취업진로연구**, 7(3), 129-148.

장승환·임진혁·이재춘·박설우(2019), “취업을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교과목 운영 시 외부 전문가의 활용이 학생들의 교육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취업진로연구**, 9(2), 79-94.

장재훈·부기철(2017), “취업지도전담교수의 역할이 대학취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C대학교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17(1), 1-23.

주경일(2018), “대학구조개혁평가 정책에 대한 인식 비교”, **GRI연구논총**, 20(3), 129-159.

최정인·문명재(2017),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한 대학의 대응전략”, **지방정부연구**, 21(2), 305-323.

The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 11, No. 1 - March 2021

A Study on the Impact of the 2015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Assessment on the Employment Performance of University

In-seob Hwang

Kyungshung University, Busan, Korea

Sung-yong Yoon

Kyungshung University, Busan, Korea

Jai-hoon Yang*

Kyungshung University, Busa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ts effectiveness and policy direction by quantitatively analyzing how the results of the university restructuring assessment have affected the enhancement of university competitiveness, including employment performance. To this end, this study confirmed that universities with good grades in the results of the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showed better competitiveness in educational conditions, academic management, student support, and educational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results of the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evaluation showed significant results by grade in the scholarship payment rate and the employment rate of graduates. The scholarship payment rate, which is easy for universities to control, showed higher improvement in the education rate, while the higher the employment rate of graduates, the higher the assessment grade, the higher the improvement rate, but the higher the risk awareness of the assessment result of the lower grade C, the higher the grade B. In addition, we analyzed how the indicators of educational conditions, student support, and educational performance used in the assessment of university structure reform affect the employment rate of graduates, which is a major achievement of universities,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quantitative indicators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the employment rate of graduates.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qualitative efforts such as job-related subjects and comparative courses that universities have been expanding since the evaluation of university restructuring. Finally, in this study, the meaning of the analysis of quantitative indicators for the evaluation of university structure reform was examined and its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were presented.

Key Words : University Structural Reform Assessment, Quantitative Indicators Improvement Rate, Graduates Employment Rate.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Kyungshung University, 309 Suyeong-ro, Nam-gu, Seoul, Korea, 48434; E-mail: yjh4078@ks.ac.kr; Tel: +82-51-663-4553; Fax: +82-51-627-6830.